

쇄석의 고고학

여기 모은 기차길의 쇄석은 땅 속에 묻혀 있었거나 시냇물에 씻겨온 자갈과는 다르다. 인간에 의해 부셔진 이 쇄석엔 이 철도의 개통이래 폐선이 될 때까지의 세월의 지층이 덮여있다. 승객들에 의해 배출된 똥과 오줌과 가래, 그리고 철길의 먼지와 녹이 켜켜이 쌓인 고고학적 쇄석인 것이다. 이 고고학적 세월의 지층엔 이름 모를 잡초와 이끼가 열은 생존을 기대고있기도하다.

나는 이제 인간에 의해 부여된 그 기능을 다하고 자연으로 되돌려진 이 쇄석들을 한곳에 모아 돌무지를 만든다. 마치 행려의 안녕과 복을 빌며 던져진 서낭당의 돌무지처럼.....오가는 사람들이 또 그 돌맹이들을 조심스레 쌓아올려 탑을 만들기도 하리라.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오고간 흔적으로서 경계표가 되기도 하리라.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언젠가는 나무와 풀들이 우거져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기도 하리라.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흐른 후 한 노인이 어찌다 이 돌맹이 하나를 줏어들고 이 돌맹이에 쌓인 역사를 곰곰히 드러다 보며 노년의 외로움에 벗 삼기도 하리라.

2002. 3 김용익